

韓國의 선비정신 · 103

내 몸의 먼지도 털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먼지를 털랴!



리효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김덕함은 평생 동안 일곱 고을의 원을 지냈다. 그런데도 워낙 청렴하여 양식이 떨어질 때가 많았다. 아내가 식량이 없다고 투덜거리면 그는 늘 웃으면서 말하였다.

“뚫어죽을 지경에 이르러만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거 마련이오.”

평생 동안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고 남의 집을 빌려 살았으며, 책상이나 가구에 내리앉은 먼지조차 털지 않았다. 집안 사람들이 청소하려 들면 그는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몸의 먼지도 깨끗이 털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물건의 먼지를 털랴!”

광해군 때는 살림이 워낙 조물조물하고 주위에 장사지낼 준비를 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하인을 불러 말했다.

“어서 죽을 쑤어 오너라. 떠나더라도 배는 채우고 가야겠다.” 그는 맛있게 죽 한 그릇을 비운 다음, 형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썼다. 형에게 하직하는 글을 쓴 후 그는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을 띠었다.

이름날 금부도사가 도착했는데 다행히 사약을 내린 것은 아니었고, 유배지를 옮기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새 유배지로 가기 위해 복창을 지나다가 그곳에 귀양과 있는 이항복을 만났다. 이항복은 조정에 있으면서 늘 김덕함을 아끼고 후원해주었다.

그 무렵 광해군이 궁궐을 보수하였는데 공사의 감독이 매우 어수선했다. 그리하여 궁궐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남의 집담에 있는 벽돌이나 무덤 앞의 축대들을 갖다 바치고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먹을 것이 귀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덕함은 종을 공사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남의 집 물건을 도둑질하여 나에 비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다.”

이이첨 일파가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론을 주창했을 때, 김덕함은 이에 반대하다가 결국 남해로 귀양을 떠났다. 그가 남해로 도착한지 7일 만에 금부도사가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사약이 내려오리라 생각하고 주위에 장사지낼 준비를 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하인을 불러 말했다.

“어서 죽을 쑤어 오너라. 떠나더라도 배는 채우고 가야겠다.” 그는 맛있게 죽 한 그릇을 비운 다음, 형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썼다. 형에게 하직하는 글을 쓴 후 그는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을 띠었다.

이름날 금부도사가 도착했는데 다행히 사약을 내린 것은 아니었고, 유배지를 옮기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새 유배지로 가기 위해 복창을 지나다가 그곳에 귀양과 있는 이항복을 만났다. 이항복은 조정에 있으면서 늘 김덕함을 아끼고 후원해주었다.

그 무렵 광해군이 궁궐을 보수하였는데 공사의 감독이 매우 어수선했다. 그리하여 궁궐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남의 집담에 있는 벽돌이나 무덤 앞의 축대들을 갖다 바치고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먹을 것이 귀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덕함은 종을 공사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남의 집 물건을 도둑질하여 나에 비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다.”

는 못하겠네.”

그는 유배지를 여러 곳으로 옮겨 지내다가 인조반정이 성공한 후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다.

인조 초기에 그는 승지로 있었다.

어느 날, 임금이 김덕함을 불러 김공량에게 자급(資級)을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공량은 선조의 후궁이었던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오라버니로, 누이가 선조의 총애를 받아 이를 이용해 세도를 부린 인물이었다.

김덕함은 그런 사람에게 자급을 주라는 어명을 부당하다고 여기고 실행하지 않았다.

김덕함 1562년(명종 17)~1636년(인조 14).

본관은 상주이며 자는 경화(景和), 호는 성음(醒隱)이다. 1588년(선조 21) 진사가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연안(延安)에서 초토사 이정암을 도와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광해군 때 군기시정에 이르렀으나 이항복과 함께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남해에 유배되었다.

이후 명천, 온성, 사천 등지로 유배지를 옮겨다가 인조반정 때 풀려나 대사성·대사간·대사헌을 지냈다. 이때 인조에게 사치를 금하고, 김공량(金公諲)의 신임을 반대하다가 미움을 사기도 했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청나라에 대한 척화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인조 때 첨백리로 뽑히고, 저서로 『성음유고』가 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특별 인터뷰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 예능보유자 오 세 철

풀피리의 효과적인 전수 위한 시스템 마련 시급 오세철 보유자, 음반, 교본, 동영상 등 세상에 선보여



속적으로 풀피리를 배워 다른 학교로 접근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풀피리를 전수하고 있는 형태로 풀피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풀피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포천시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전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은 오세철 보유자의 주요 프로젝트이다.

▶강원도 칠원 출생 ▶故. 田今山(전금산)선생님께 풀피리 ▶중요무형문화재제29호(서도소리 이은관류)사서 ▶국립국악관현악과 풀피리협연(3회) ▶아시아 전통문화 국제학술회의 및 아시아 민속문화엑스포 초청공연(풀피리연주) ▶2005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기념(본행사)공연 초청공연(풀피리연주) ▶오세철 음악세계(발표회 3회) ▶오세철 풀피리 독주집음반(제1집) 출반 ▶풀피리 교본(제1집) 오세철 역을 출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草琴) 예능 보유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971년 중학교 1학년때 우연히 친척집인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 놀러 갔다가 당시 80세 되신 고 전금산 선생으로부터 풀피리(草琴,草笛)연주법을 사사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8호 지정된 오세철 예능보유자는 현재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에 살고 있다.

스승이신 고 전금산 선생님이 타계하자 오 보유자는 풀피리에 관련된 서적을 연구하며 풀피리를 스스로 공부했다고 한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이은관류) 이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오 보유자는 강원도 칠원군 동송읍 유지리에서 태어났다.

풀피리는 전통향악기로 궁중음악인 악학계법에 '초적(草笛)'으로 소개되고 있다. 풀피리 연주방법은 굴 일사키나 유사있을 따서 부르게 되어 있다.

풀피리에 기본적인 파지(잡는) 요령과 각 도 민요 그리고 풀피리야와 어울리는 메나리 가락과 서치기, 혀치기, 목더름을 고인이 되는 전금산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선생님의 기본가락과 연주법을 사사 받아 독공을 깨우려 하지

않고 6~7년이 지났을 무렵인 1978년 당시 풀피리 연주자가 없던 시절 TV방송에 몇 차례 출연하자 뜻밖에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다.

군에 입대해서도 공연단에 소속되어 풀피리 보급 및 공연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선생님께서 물려주신 풀피리 연주법을 바탕으로 계속된 독공은 사계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여름철에는 지천으로 깔려 있는 모든 나뭇잎이나 풀잎들이 악기이지만 겨울철에는 집 안 거실에서 키우는 나뭇잎이 연습 도구가 되었다.

오 보유자는 우리나라 전통 향악기가 발굴되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풀피리 협연도 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국 공연,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매스컴을 통해 수 백 회 소개되기도 했다고 한다.

전국에 100여명의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향악기인 풀피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승하는 마음으로 풀피리 전수 교육 교본을 제작하기도 했다.

오 보유자는 그러나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지 않아 배우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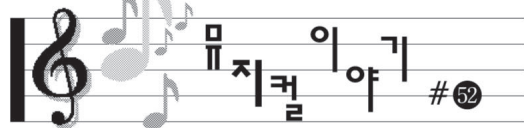
국악대학에서 관련학과를 개설하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포천시에서도 풀피리를 전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수 백여 차례의 공연을 통해 풀피리 소리를 들려준 오 보유자는 "이곳이 적지지가 많고 한탄강이 있어 한탄강 아리랑을 만들었다"며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연주회 때마다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오 보유자는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어떤 지도자이든 문화가 나라의 국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도자들은 문화를 뒷전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마하기 전에 공약으로 세운 약속을 지켜서 우리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유형문화재 위주의 문화정책에서 무형문화재 중심으로 사회의 전환이 필요하고 무형문화재가 보존, 계승, 계승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여명의 문화인들이 풀피리를 공부하고 있으며 특히 영북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이 지



암울한 교육 현실과 피노키오의 죽음(1)

광우병, 조류독감(AI), 서해안 기름유출, 오일쇼크, 물가 폭등, 전세 값 폭등, 중부세 완화, 고급 수입차 급증, 고급 휘발유 소비 급증, 대우의 논쟁, 사상최악의 소득격차---한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구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최근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국내뉴스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가. 동화(피노키오)에 나오는 뚝딱 사람 들처럼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단단 하면 다 해결되는 세상, 돈이 최고이며 돈을 벌기 위해서 는 유치원에서부터 영어와 한자를 공부해야 하고 초등학교 때에도 방방게까지 학원을 다녀야하며 빛을 내서라도 비싼 학원에 등록을 하고 거리가 아바가 된다 해도 조기유학도 마다 않는 현실이 <피노키오>의 원작동화처럼 희망 없는 사회로 전락해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다. 물론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는 한 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마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만드는 학원의 기능처럼 동일시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교육현실 속에서 아이들의 적성과 특기와의 상관없이 모두가 특목고를 선호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모들은 수백 만원의 학원비를 지불해야만 한다는데 비극이 있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인 것 같다. 돈이 없으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깝게 다가온다.

뮤지컬 <피노키오(Pinocchio)>는 디즈니가 만든 두 번째 장편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1940년에 개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이 되고 싶은 인형이 요정의 도움으로 진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아이들만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른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동화 속 이면에 흐르는 의인화된 상징성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을 되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피노키오>의 원작 제목은 <피노키오의 모험>이다. 저자는 이탈리아의 작가 콜로디(Collodi, Carlo Lorenzini, 1826~1890)로 1880년부터 1883년까지 이탈리아 <아동신문 Giornale dei bambini>에 '나무인형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연재된 동화였다. 망나니인 피노키오가 귀뚜라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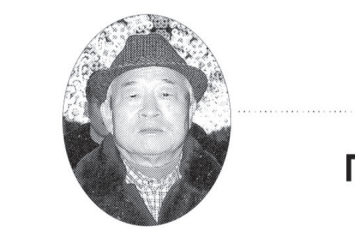
죽이는 장면이라든지 피노키오가 목매달려 죽는 장면 등 원작이 갖는 충격적인 내용은 쉽게 잊혀 지질 않는다. 옹고 그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된 교육도 거의 받아보지 못한 피노키오가 쉽게 악당들의 꾀안에 넘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런 피노키오가 어쩌면 오늘날 교육부채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섭게만 느껴진다.

피노키오의 원작에선 금화를 가진 피노키오가 악당들을 만나서 금화를 빼앗기게 되고 악당들은 잔인하게도 피노키오를 나무에 목매달아 버린다. 죽음의 기로에서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나타나지 않고 목이 매달린 채 숨이 끊어져 가는 다소 열거적인 내용은 동화로는 정말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신문을 연재하면서 독자들의 무서운 항의를 받아서인지 동화책이 출간되면서 요정이 첨가되고 해피엔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피노키오가 요정의 도움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세상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피노키오의 아이들에게 과연 누가 요정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어린이들이 치명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온 사실이다. 아동의 예를 들면 인터넷

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초등 학교 저학년생도 자연스럽게 음란물을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동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판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문제로 단순히 음란물을 보고 따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될 것 같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 타인들에 대해 아주 버릇없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였던 피노키오처럼, 더욱이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피노키오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점차 학원화되어 가는 우리 교육현장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과 이 아이들을 방치한 해당교사와 과 이 사실을 숨겨버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온 학교당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스스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학교당국은 피노키오를 비롯한 동대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37)

「아로마 테라피」(AROMATHERAPY)

「아로마(향:香) 테라피(치료:治療)」는 합성어(合成語)이다. 허브(건강에 도움을 주는 '향'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精油:ESSENTIAL OIL)를 이용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병리현상을 예방, 치료, 개선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아로마 테라피」의 기본 원리는 향 입자가 코를 통해 후각신경을 자극하고 향을 뇌에 전달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치료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로마 테라피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첫째가 흡입법이다. 직접 향을 맡거나 티슈, 손수건 등에 오일 1~2방울을 떨어뜨려 냄새를 맡거나, 대야에 뜨거운 물에 2~3방울의 오일을 떨어뜨린 후, 손수건으로 머리와 대야를 덮은 후, 눈을 감고 수분간 수

증기를 마신다. 또, 랩프를 이용하여 옛센셀 오일을 물에 희석하여 열을 가함으로써 직접 공기 중으로 증발시켜 확산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랩프의 장시간 사용은 좋지 않다. 가정에서 분무기 물에 옛센셀 오일을 몇 방울 섞어 실내 공간에 뿌려 주는 방법이 있다. 둘째 마사지 법은 옛센셀 오일은 너무 강하게 희석하는 캐리어 오일과 섞어 사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스팀부착법으로 차가운 뜨거운 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짜내어 한쪽에 덮는데 물에는 허브와 옛센셀 오일 4~5방울 떨어뜨려 사용한다. (근육이 뭉쳐거나 멍이 든 곳) 넷째가 목욕법인데 발 씻기(족욕) 후 2~3방울, 목욕은 5~10방울 욕조에 넣고 15~20분 담근다.

그렇다면 아로마 테라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신경안정 효과이다. 둘째가 순환 촉진작용이며 셋째가 항균작용이고 넷째가 방향(放香)작용이다. 다섯째가 미용효과이고 노후된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요약 해설하면 긴장해소, 피로회복, 집중력 기억력 높여주기, 정서불안 신경성 장애에 치료에 도움을 준다. 통증 완화, 경직된 근육이완, 신체 전 사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스팀부착법으로 차가운 뜨거운 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짜내어 한쪽에 덮는데 물에는 허브와 옛센셀 오일 4~5방울 떨어뜨려 사용한다. (근육이 뭉쳐거나 멍이 든 곳) 넷째가 목욕법인데 발 씻기(족욕) 후 2~3방울, 목욕은 5~10방울 욕조에 넣고 15~20분 담근다.

을 편하게 하는 「라벤다」는 숙면(번비 효과적 치료)에도 좋다고 한다. 「스트로 베리」의 달콤한 향은 식욕을 돋우기도 한다. 이러한 「아로마 테라피」는 서양인들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속이나 마늘향이 곱할머니를 사람으로 탄생케 하는 기적을 낳았다. 속으로 태운 연기가 모기를 쫓고 머리 상처에다 속을 태우 불었으며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박(박인트)풀이 문 밖에 심어져 두뇌를 맑게 했으며 논둑의 「오이꽃 향기」는 점성 관주리라고 하는 「이쁜이」의 피로 회복제였다. 내 고향 포천 신북면에는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허브 랜드」가 있어 고향 자랑의 한몫을 더한다.

필지연락처 02-932-2434

«버로 잡습니다» 제414호. 포천이야기(236)-정성(再續)「성대중(成大中)」(좌)1단 11행 유지-유지 3단 14행 편하-편찬 4단 3행 복한-북화

초대 漢詩

完山勝地



최종규 포천명유회 회장

完山勝地物華佳(완산승지물화가) 玩賞人波滿市街(완상인파만시가) 완산경치좋은 땅에 만물은 빛나고 아름다우며 취미심이 구경하는 인파가 시기에 가득하니 梧木臺前垂五柳(오목대전수오류) 慶巖下蔭三槐(경기전하음삼괴) 오목대 앞에는 오류가 드리우고 경기전 아래에는 세그루 회화나무 그늘이 짙네. 愚癡不棄虛妄愆(우치불기허망역) 君子恒存正當懷(군자항존정당회) 못나 사람은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허망한 욕심을 버리며 군자는 항상 정당한 생각을 생각하고 있다. 竹杖芒鞋尋遠友(죽장망혜심원우) 淸風明月與之偕(청풍명월여지회) 죽장에 짚신 신고 멀리서 벗이 찾아왔는데 맑은 바람 밝은 달과 더불어 함께 즐기네 ▶愚癡(우치)-어리석고 못나, 完山(완산)-전주의 고지명, 玩賞(완상)-취미심이 구경함, 승지(승지)-경치가 좋은 곳, 梧木臺(오목대)-돈대의 이름, 慶巖(경기전)-전각의 명칭, 三槐(삼괴)-짚신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주간